

영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부모역할신념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석*

유성경**·방지원***·임인혜****·최보윤*****·김수영*****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부모역할신념이 어떠한 하위 집단으로 분류되는지 확인하고, 집단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위집단들의 차이는 어떠한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영유아기 자녀를 둔 408쌍의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는 부모 역할에 대한 신념에 따라 부부 진보형(PC:Progressive Couple), 남편 진보형(PH:Progressive Husband), 아내 진보형(PW:Progressive Wife), 부부 보수형(CC: Conservative Couple) 4개 하위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집단 분류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부인의 나이, 교육과 소득이었다. 유의미한 집단차이는 다음과 같다. 1) PC형의 남편과 아내는 모두 결혼만족도가 높고, 가정-일 향상,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PW형의 남편들은 스트레스, 우울, 가정-일 갈등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가정-일 향상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PH형의 남편들은 결혼만족도와 배우자 지지가 가장 높고, 가정-일 갈등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3) PW형의 아내들은 낮은 배우자 지지와 결혼만족도를 지각하면서도 가정-일 갈등은 낮게 지각하였다. PH형의 아내들은 결혼만족도는 높지만 가정-일 갈등은 높게 경험하였다. 4) CC형의 남편과 부인들은 PW형 보다는 적응적이었지만, CC형의 부인들은 가장 높은 가정-일 갈등을 지각하였다.

주제어 : 부모역할신념, 맞벌이 부부, 일-가정 양립, 가정-일 향상, 가정-일 갈등, 성역할태도, 잠재프로파일 분석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A2A03041362).

**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skyoo@ewha.ac.kr)

*** 교신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jiwon8686@gmail.com)

****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ine0521@gmail.com)

*****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cby4050@hanmail.net)

*****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suyoung.kim@ewha.ac.kr)

I. 서론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맞벌이 가족 증가는 전통적인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현재 한국의 맞벌이 부부 비중은 46.0%(통계청, 2020) 전체 부부의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가족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맞벌이가구의 규모는 한 사회의 성별분업구조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김수정, 2015) 맞벌이 부부가 보편화되어가는 추세는 한국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구분하는 성역할 규범이 완화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의 가정관리 및 가족 구성원의 돌봄을 포함하는 가사노동시간을 비교해보면 남편이 가사노동에 사용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54분인데 비해 아내는 3시간 7분으로 나타나 2009년 조사(남편 37분, 아내 3시간 20분)에 비해 다소 나아졌지만 여전히 아내의 가사노동 분담 비율이 남편에 비해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9; 2019). 즉, 외형적으로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공적 영역으로 진출하는 여성이 급증하면서 “생계부양자는 아버지, 그리고 가정 내 돌봄자는 어머니”라는 전통적인 이분법적 구분이 많이 모호해지고 있지만(김주엽, 2006), 성역할 규범을 반영하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나 가사노동과 관련된 지표들은 성역할에 대한 가치관이 여전히 전환기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부부의 성역할에 대한 가치관의 혼재는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 경험에서도 나타난다. 여성들의 경우 가사분담에서는 평등적인 성역할태도를 지지하면서도 남편이 자신보다 임금이나 지위가 더 높기를 바라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문지선, 2017; 이은희, 2002), 엄마가 일을 하는 경우 어린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수적인 시각은 쉽게 변화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즉, 성역할 분리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반대하지만 막상 실생활에서는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모성이데올로기를 고수하여 맞벌이 여성 또한 성역할에 있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Brewster & Rindfuss, 2000; 문지선, 2017).

남성들의 경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아버지상이 제시되면서 새로운 아버지(New father), 참여하는 아버지(Involved father), 돌보는 아버지(Caring father)와 같은 개념들이 등장하였다(Burnett et al., 2011; Lamb, 1986; Marsiglio & Roy, 2012). 새롭게 등장한 아버지상의 특징은 남성과 여성의 영역을 일과 가정으로 구분하지 않고 가사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정 내 역할분담에서 보다 성평등적

인 아버지상을 장려한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급진적인 요구는 맞벌이 남편에게 전통적인 ‘부양자’의 역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양육자’ 역할과 ‘배우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혼란감과 일-가정 양립에 있어서 가중된 부담을 가져온다(Nomaguchi, 2007). 남성들은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자녀양육에 관한 한 여성의 전통적 역할을 기대하거나(한지숙·유계숙, 2007), 부부의 공평한 육아 및 가사 분담을 지지하면서도 아내가 취업을 해도 자녀양육과 가사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보는 등(공선희, 2009) 남성들 역시 성역할태도에 있어서 변화의 과도기에 있음을 알 수 있다(유계숙, 2010; 공선희, 2009).

성역할은 어떠한 행위나 태도가 적절한가를 말해주는 문화적인 기대치로,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습득된다(임정빈·정혜정, 2000). 그러나 동일한 사회화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성별, 연령, 교육수준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른 성역할태도를 갖게 된다(송리라·이민아, 2012). 특히 한국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보다는 남성이, 그리고 미혼자보다는 기혼자의 성역할태도가 더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이 높고, 미취업자보다는 취업자의 성역할태도가 진보적인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백주희, 2009). 또한 동일한 역할을 맡을지라도 개인이 지닌 성역할태도가 보수적인지 혹은 진보적인가에 따라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대한 긴장과 갈등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송리라·이민아, 2012). 선행연구에 의하면 진보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에 비해 정신건강 상의 수준이 높았으며(Barnett & Hyde, 2001; Wierda-Boer, Gerris & Vermulst, 2008), 특히 보수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진 남성은 정서적인 고통에 더 취약하고, 2,30대 남성들은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받아들일수록 우울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송리라·이민아, 2012). 이는 젊은 남성들에게 성 평등적인 역할 수행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보수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닌 남성들이 일-가정 양립의 문제에 당면했을 때 더 높은 긴장과 갈등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여성의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는 결혼생활과 가사, 양육에 대한 부담을 지우며 여성의 우울과 관계가 있으며(한인영·홍선희, 2011),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만들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박경, 2003; 한인영·홍선희, 2011). 그러나 동시에 여성이 보수적 성역할태도를 지닐수록 자신의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이미숙, 1996; 이수연, 2000; 이여봉, 2010; Amato & Booth, 1995; Minnotte et al., 2010), 여성이 평등적인 태도를 가지면 오히려 결혼 안정성

이 떨어진다는 결과(Barnett & Hyde, 2001)도 나타나, 개인이 속해있는 사회 문화적 특수한 맥락 속에서 성역할태도를 확인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송리라·이민아, 2012).

어린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들에게 자녀 양육은 일-가정 양립에서 큰 축을 이루며, 이들이 겪는 심리사회적 부담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목되고 있다(강기정·박혜성·계선자, 2005; 이재림·손서희, 2013; 최유정·최미라·최샛별, 2018). 특히 취학 전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족의 경우 다른 생활주기의 맞벌이 부부에 비해 더욱 높은 양육스트레스와 갈등을 경험하는데 이는 자녀 출생으로 부부가 해야 할 역할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가치관에 반하는 남편의 참여가 강조되면서 부부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부부 갈등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은희, 2002). 따라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의 삶의 역동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가지고 있는 성역할태도에 기반을 둔 부모역할에 대한 신념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자녀 양육과 관련된 태도는 성역할 이데올로기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Gaunt, 2008; Hauser, 2012), 개인의 역할 중요도나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Jacobs & Kelly, 2006). 즉, 부모역할에 대한 신념은 개인의 성역할태도와 깊은 관련이 있지만 두 구인은 서로 독립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자녀 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성역할태도보다 구체적인 부모역할신념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Gaunt, 2008; Hofferth, 2003).

그러나 양육자의 역할 신념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어머니나 아버지 한 쪽을 대상으로, 어머니 역할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나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모성이데올로기를 측정하거나(Hattery, 2001), 아버지가 인식하는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측정하는 척도(Fox & Bruce, 2001; Palkovitz, 1984)를 사용하여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 한 쪽의 신념만을 측정하여 각 개인의 신념이 부부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onney와 Kelly(1996)가 제안한 부모역할신념(Beliefs Concerning the Parental Role)을 바탕으로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 양육과 관련된 신념을 탐색하고자 한다.

부모역할신념이란 자녀양육에 있어 어머니, 아버지 각각의 역할에 대한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인 가치관을 반영하는 개인의 생각이나 믿음으로(조운진·임인혜, 2016), 양육 과정에서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는 부모 각각의 역할을 일관된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개인의 생각이나 믿음을 의미한다(Nangle et al.,

2003). 부모역할신념은 일반적으로 진보적 태도와 보수적 태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하위요인은 다음의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조윤진·임인혜, 2016). 먼저 ‘양육자-어머니 신념’과 ‘생계부양자-아버지 신념’은 가족 내 성별 분업에 대한 대표적인 표상이며, 다음으로 ‘남녀 역할의 구분’은 남성에게 양육의 책임을 부여하면서도 남성을 여성에 비하여 부족한 돌봄 능력과 더 적은 책임을 가진 존재로 제한하는 신념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양육의 중요성’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 참여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조윤진·임인혜, 2016).

부모역할에 대한 남편과 아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은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 뿐 아니라 부부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김병수, 2019; 조윤진, 2017; Adamsons & Pasley, 2013; Hauser, 2012; Jacobs & Kelley, 2006; McBride et al., 2005) 개인이 갖고 있는 부모역할에 대한 태도는 자신과 상대방, 그리고 자녀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 모두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수적인 아버지에 비해 진보적인 부모역할신념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경우 양육참여가 높았으며(Beitel & Parke, 1998; Jacobs & Kelley, 2006; Nangle et al., 2003), 부모 역할에서 보수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는 경우 부부간 만족도 및 부부갈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은·이윤희, 2012). 또한 아버지의 신념뿐 아니라 어머니가 진보적인 부모역할신념을 갖고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Beitel & Parke, 1998; Rane & McBride, 2000), 부부의 부모역할에 대한 신념이 양육 분담과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이를 통해 부부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조윤진·임인혜, 2016).

맞벌이 부부의 부모역할신념은 부부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중요한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어머니나 아버지 한 사람의 관점을 중심으로 연구되었거나, 부부 상호간의 영향력을 고려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성역할태도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자녀 양육과 관련된 부모역할 태도의 영향을 분석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신념이란 일관된 방식으로 자극과 사건을 해석하는 개인의 성향과 믿음을 의미하기 때문에(Belch, 1978) 특정한 개입 없이는 가족 생활주기에 따라 스스로 변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부모역할은 자녀 연령 및 가족 생활주기에 맞춰 요구되고 기대되는 부분이 다르며,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다른 가족 생활주기의 맞벌이 부부에 비해 더 많은 스트레스와 역할 긴장을 경험하고 있기에(Voydanoff, & Kelly, 1984) 이 시기의 맞벌이 부부의

부모역할신념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맞벌이 부부들은 부모역할에 대한 신념에 따라 어떠한 잠재집단으로 구성되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잠재집단 유형 구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각 잠재집단이 부부 개인과 부부의 관계, 그리고 일-가정 양립에 미치는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역할신념의 네 가지 하위요인인 성역할 구분, 양육자 어머니 신념, 아버지 양육의 중요성, 생계부양자 아버지 신념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잠재집단은 몇 개로 구분되며, 각 집단의 특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모역할신념에 따라 구분된 맞벌이 부부의 잠재집단에 대하여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연령, 최종 학력, 월 평균 수입 등)은 각 집단에 개인이 소속될 확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구분된 잠재집단에 따라 지각된 스트레스, 배우자 지지, 결혼만족도, 삶의 만족도, 우울, 일-가정 향상, 일-가정 갈등 변인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에는 막내 자녀의 나이가 만 4세 이하이며, 부부 모두 취업자인 맞벌이 부부 408쌍, 816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자료 수집 절차는 2019년 10월 IRB 승인¹⁾을 받은 후, 11월까지 약 2달 간 인터넷 포털 사이트(다음, 네이버 등)의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 연구 참여자 모집문건을 제시하고 온라인 설문 주소 링크(survey monkey)를 안내하는 눈덩이 표집을 사용하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연령, 성별, 직업 등)는 익명화 처리하여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핸드폰 번호는 연구 참여 후 1개월 안에 연구 보상 답례품 발송이 완료된 후 폐기하였다. 이외에도 수집된 개인 정보 및 응답 자료는 익명화 하여 보관 및 사용하며 연구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 후 폐기 예정이다.

1) IRB No. 이화여자대학교-201910-0013-05

연구 대상의 특성은 <표1>과 같다. 연구 대상의 연령 범위는 25세에서 50세이며, 평균 연령은 35.53(SD=3.54)세이다. 교육수준은 4년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직업군에서는 사무직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연구 대상의 평균 자녀수는 1.4명(SD=0.53)이고, 연구 참여 지역은 서울, 경기, 경상, 전라, 인천 순으로 많았으며, 강원, 충청, 대전, 세종, 대구, 울산, 부산, 광주 등에서 연구에 참여하였다.

<표1> 연구대상의 특성

		전체	여성		남성
나이		35.53세(SD=3.54)	34.69세(SD=3.19)		36.81세(SD=3.58)
교육 수준	고졸	21명(2.6%)	9명(2.2%),		12명(2.9%),
	전문대	44명(5.4%)	24명(5.9%),		20명(4.9%),
	4년제	541명(66.3%)	253명(62%),		288명(70.6%),
	대학원이상	210명(25.7%)	122명(29.9%)		88명(21.6%)
직업	사무직	408명(50.0%)	198명(48.5%),		210명(51.4%),
	전문직	187명(22.9%)	108명(26.4%),		79명(19.3%),
	서비스 판매	72명(17.6%)	36명(8.9%)		36명(8.9%)
	생산 노무직	26명(3.2%)	4명(1.0%)		22명(5.4%)
	기 타	123명(15.1%)	62명(15.2%)		56명(13.8%)
지역	서울	190가정(46.6%)	자녀 나이	첫째자녀	3.56세(SD=1.68)
	경기	125가정(30.6%),		둘째자녀	3.15세(SD=1.56)
	경상	16가정(3.9%)		셋째자녀	3.36세(SD=1.36)
	전라	15가정(3.7%),	자녀수	한명	253쌍(62.0%)
	인천	10가정(2.5%)		두명	145쌍(35.3%)
	기타	52가정(12.8%)		세명	10쌍(2.4%)

2. 연구도구

1) 인구통계학적 질문지

연령, 성별, 거주 지역, 학력, 결혼 기간, 직장 경력, 직군, 직위, 고용 상태, 주당 근무시간, 가정에서의 시간 사용(육아, 가사), 자녀 수, 자녀 나이, 월평균 개인 순소득, 연구 참여 보상을 위한 휴대폰 번호 등을 질문하는 문항을 구성하였다.

2) 부모역할신념

보니와 켈리(Bonney & Kelly, 1996)의 Beliefs Concerning the Parental Role Scale(BCPR)을 바탕으로 조운진·임인혜(2016)가 개발 및 타당화 한 한국적 부모역할 신념 척도를 사용하였다. ‘남녀 역할의 구분’, ‘양육자-어머니 신념’, ‘아버지 양육의 중요성’, ‘생계부양자 아버지 신념’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버지 양육의 중요성’은 역 채점하여 본 연구에서 높은 점수는 보수적인 부모역할 신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낮은 점수는 진보적인 부모역할신념으로 해석한다. 보니 외(Bonney, Kelly & Levant, 1999)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아버지 .87, 어머니 .80이었으며, 조운진과 임인혜(2016)의 연구에서 아버지는 .84, 어머니는 .86으로 확인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는 .93 어머니는 .91 이었다.

3) 배우자지지

김수정(2015)이 일-가족 양립에 관한 배우자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 및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나의 일에 대한 존중’, ‘자녀양육 및 교육을 공유함’, ‘가정 일의 분담’, ‘어려움에 대한 지지’ 4개의 하위요인으로 요인별 6문항씩 전체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리커트 형식이며, 김수정(2015)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남편과 아내 모두 .9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남편 .96 아내는 .95 이었다.

4) 지각된 스트레스

박준호·서영석(2010)이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타당화한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의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지각된 스트레스는 긍정적 지각 5문항과 부정적 지각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리커트 형식이다. 박준호·서영석(2010)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긍정적 지각 .74, 부정적 지각 .77로 확인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남편과 아내 모두 .81이었다.

5) 가정-일 향상

칼슨 외(Carlson et al., 2006)가 개발한 일-가정 향상 척도(Work-Family Enhancement; WFE)를 김수정 (2015)이 기혼 유자녀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일에서 가정, 가정에서 일의 하위영역으로 나뉘며 영역별로 각 9문항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영역은 개발, 정서, 자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에서 일에 미치는 갈등을 살펴보았다. 김수정(2015)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남편 .97-.94, 아내 .95로 확인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남편 .94 아내 .97 이었다.

6) 가정-일 갈등

칼슨 외(Carlson et al., 2000)가 개발한 일-가정 갈등 척도(Work-Family Conflict: WFC)를 김수정(2015)이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8문항으로 일에서 가정, 가정에서 일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되어 각 9문항씩이며, 각 영역은 시간, 긴장, 행동의 하위요인으로 다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에서 일에 미치는 갈등을 살펴보았다. 김수정(2015)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남편 .89-.88, 아내 .86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남편과 아내 모두 .89이었다.

7) 삶의 만족도

디에너 외(Diener et al., 1985)가 개발한 SWLS(Satisfaction with Life Scale)를 조명환·차경호(1998)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5문항, 리커트식 7점 척도이고, 박선영·권석만(2014)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9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남편 .90 아내 .89이었다.

8) 결혼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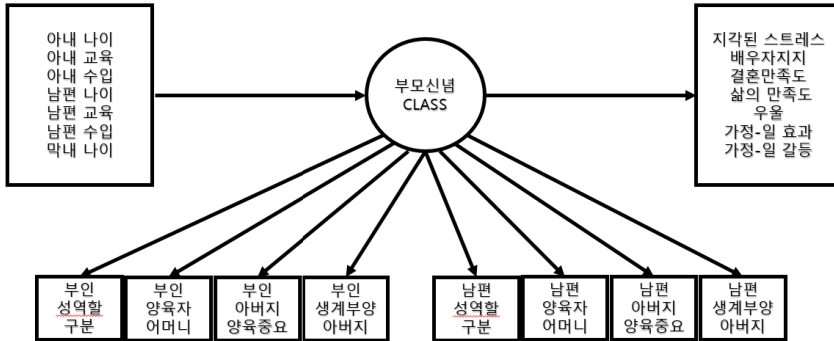
노튼(Norton, 1983)이 개발한 QMI(Quality Marriage Index)를 장춘미(2009)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QMI는 결혼생활 만족에 대한 전반적인 지각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5번 문항은 리커트식 7점 척도이고, 6번째 문항은 10점 척도이다. 장춘미(2009)의 연구의 신뢰도는 남편 .96, 아내 .9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남편 .96 아내 .97 이었다.

9) 우울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를 번안한 국내판 세 개의 척도를 통합하여 타당화한 통합적 한국판 CES-D(전경구·최상진·양병창, 2001)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되며 척도의 신뢰도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남편 .94 아내 .93이었다.

3. 연구과정

맞벌이 부부의 부모역할신념 잠재프로파일을 분석하고 공변인의 영향과 결과변수의 집단차를 확인하기 위해 [그림 1]의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맞벌이 부부의 부모역할신념에 대한 잠재계층분석 연구모형

부부의 부모역할신념의 잠재 집단을 분류하고 공변인이 집단 분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분류된 집단에 따라 결과변수의 집단 차를 분석하기 위해 Mplus 8(Muthén & Muthén, 2018)을 이용하여 3단계 잠재프로파일 분석(Vermunt, 2010)을 실시하였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연구대상자에 대해 수집한 횡단적 연속형 자료를 이용하여 비슷한 반응패턴을 보인 대상자들끼리 잠재적인 하위집단(latent classes)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통계모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1단계에서 부모역할신념의 하위요인인 성역할, 양육자로서의 어머니, 아버지 양육의 중요성, 생계부양자로서의 아버지 변수를 바탕으로 맞벌이 부부의 부모역할신념의 유형을 확인하였고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얻은 잠재집단 사후분포확률을 이용하여 최적의 집단 변수를 만들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잠재 집단에 대한 공변인의 영향과 잠재 집단에 따른 결과 변수의 집단 차이를 Mplus의 Auxiliary 옵션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단계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잠재집단 변수가 공변인과 결과변수의 영향을 받아 집단 분류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1단계 잠재 프로파일 분석보다 더욱 일관적이고 정확한 분석방법으로 알려져 있다(Asparouhov & Muthén, 2014). 본 연구에서 공변인은 아내와 남편의 나이, 교육수준, 수입과 막내의 나이이고 결과 변

수는 지각된 스트레스, 배우자지지, 결혼만족도, 삶의 만족도, 우울, 가정-일 갈등, 가정-일 향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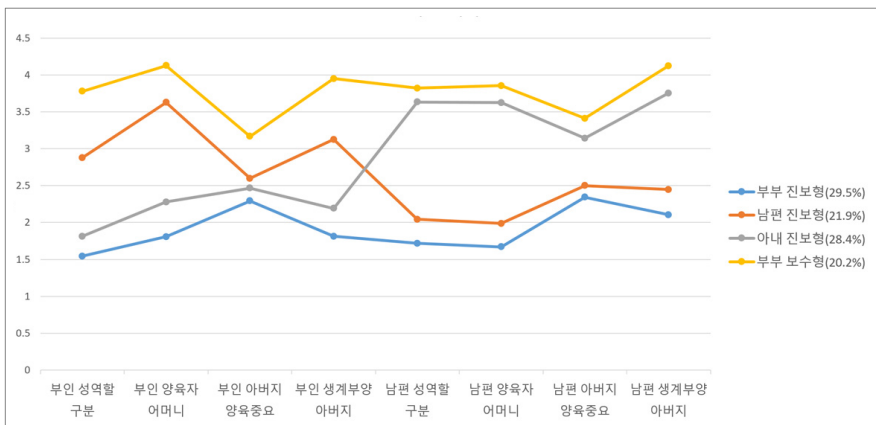
최적의 잠재 집단 수는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집단에 대한 해석 가능성과 통계적 모형적합도, entropy, 집단 비율을 바탕으로 적절하게 결정한다. 모형 적합도는 정보준거지수(information criterion)와 k-1집단과 k집단의 우도비 검정으로 확인한다. 정보준거지수 중에서는 AIC(Akaike, 1973), BIC (Schwarz, 1978), ABIC(Sclove, 1987)를 확인하여 값이 작을수록 모형이 자료에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우도비를 이용한 검정은 Lo-Mendell-Rubin 우도비 검정(LMR likelihood ratio test, Lo, Mendell, & Rubin, 2001), 조정된 LMR 우도비 검정(adjusted LMR LR)과 부스트랩 우도비 검정(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 BLRT, Peel & McLachlan, 2000)을 확인하여 p값이 .05 이상이면 k 집단으로 나누는 것과 k-1 집단으로 나누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k-1 집단을 선택한다. 집단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entropy(Celeux & Soromenho, 1996)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집단 분류가 적절함을 의미한다. 클락(Clark, 2010)은 entropy가 .8 이상이면 높고, .6 이상이면 중간이며 .4면 낮다고 제안하였다. 집단 비율에 대해서는 용과 위크라마(Jung & Wickrama, 2008)가 모든 잠재 집단이 최소 5% 이상이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공변인이 잠재 집단 분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Auxiliary의 R3STEP 옵션으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집단 분류에 있어 공변인의 영향을 추정하는 분석이다. 회귀계수는 준거집단에 비해 비교집단으로 분류되는 비율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잠재 집단에 따른 결과변수의 집단 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Auxiliary의 DU3STEP 옵션을 이용하여 Wald의 연관성 검정(Wald's association test)을 실시하였다. Wald의 검정은 잠재프로파일 분석과 같은 혼합모형에서 사후확률(posterior probability)을 고려하면서 결과변수에 존재하는 잠재집단간 평균차이를 위해 개발된 검정이다(Asparouhov & Muthén, 2014). Mplus를 이용하여 분석하면 나뉘어진 집단을 독립변수로 사용하고 지각된 스트레스, 배우자지지, 결혼만족도, 삶의 만족도, 우울, 일-가정 갈등, 일-가정 향상을 종속변수로 하여 Wald 검정을 실시한다. 이는 개념적으로 평균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분산 분석 F검정을 실시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Ⅲ. 연구 결과

1. 잠재 집단 수 결정

2집단부터 5집단 모델을 분석한 결과, entropy와 모형적합도, 집단 비율,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집단 수를 결정하였다. 4집단 모델의 entropy는 .877로 클락(Clark, 2010)의 제시에 따르면 집단분류의 질이 높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AIC는 8361.357, BIC는 8549.887, ABIC는 8400.748 이고, 집단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LMR-LR은 .001, ALMR-LR은 .001, BLRT는 .000이고 LMR-LR의 수치가 4집단까지는 .05를 넘지 않아 집단 수가 증가함에 따라 모형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5집단의 LMR-LR은 .292, ALMR-LR은 .297로 4집단과 5집단의 모형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4집단이 가장 적합한 집단 수로 판단되었다. 4집단 모델의 집단 크기 비율은 집단 1이 29.2%(119쌍), 집단 2가 21.8%(89쌍), 집단 3이 29.2%(119쌍), 집단 4가 19.9%(81쌍)로 용과 위크라마(Jung & Wickrama, 2008)가 제시한 기준을 만족하였고 4집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에 따른 집단의 분류 경향은 [그림 2]에 제시하였고 결과에 따른 각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에 제시하였다.



[그림 2] 부모역할신념 잠재계층 분석 결과 그래프

4집단 모델에 대해 각 프로파일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부부 구성원의 진보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명명하였다. 집단 1은 아내와 남편 모두 진보적인 신념을 가진 집단으로서 부부 진보형으로 명명하였고, 집단 2는 아내는 보수적인 신념, 남편은 진보적인 신념을 가진 집단으로서 남편 진보형으로 명명하였고, 집단 3은 아내는 진보적 신념, 남편은 보수적 신념을 가진 집단으로 아내 진보형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집단 4는 아내와 남편 모두 보수적인 신념을 가져 부부 보수형으로 명명하였다.

2. 공변인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인 비표준화 계수(B)와 odds ratio($=\exp(B)$)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아내의 나이가 많을수록 부부 진보형보다 부부 보수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아내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부부 보수형보다 부부 진보형, 남편 진보형, 아내 진보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아내 수입은 높을수록 부부 진보형에 들어갈 가능성이 아내 진보형, 부부 보수형보다 높았다. 남편의 나이, 교육, 수입과 막내의 나이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 부모역할신념 잠재계층분석

CLASS	ENTROPY	AIC	BIC	ABIC	LMRLR	ALMRLR	BLRT	Class Size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4	Group 5
2	.857	8886.719	9003.045	8911.024	.000	.000	.000	204 (50%)	204 (50%)			
3	.864	8587.768	8740.196	8619.616	.043	.045	.000	116 (28.4%)	185 (45.3%)	107 (26.2%)		
4	.877	8361.357	8549.887	8400.748	.001	.001	.000	119 (29.2%)	89 (21.8%)	119 (29.2%)	81 (19.9%)	
5	.882	8250.880	8475.511	8297.814	.292	.297	.000	114 (27.9%)	102 (25%)	88 (21.6%)	79 (19.4%)	25 (6.1%)

〈표 3〉 집단 평균과 집단차 검정 결과

변수	CLASS	부부 진보형		남편 진보형		아내 진보형		부부 보수형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아내	성역할구분	1.543(.081)		2.879(.189)		1.813(.080)		3.778(.132)	
	양육자어머니	1.808(.143)		3.627(.132)		2.279(.101)		4.127(.101)	
	아버지중요성	2.292(.072)		2.597(.089)		2.456(.118)		3.167(.111)	
	생계아버지	1.814(.084)		3.126(.163)		2.191(.084)		3.949(.113)	
남편	성역할구분	1.717(.089)		2.042(.132)		3.634(.117)		3.822(.103)	
	양육자어머니	1.671(.082)		1.988(.120)		3.624(.119)		3.855(.103)	
	아버지중요성	2.343(.056)		2.505(.092)		3.142(.110)		3.412(.111)	
	생계아버지	2.105(.112)		2.446(.143)		3.754(.110)		4.125(.100)	

〈표 4〉 공변인의 다항 로지스틱 회귀 계수

	부부 진보형 vs. 남편 진보형		부부 진보형 vs. 아내 진보형		부부 보수형 vs. 부부 보수형		남편 진보형 vs. 아내 진보형		남편 진보형 vs. 부부 보수형		아내 진보형 vs. 부부 보수형	
	B	e ^B	B	e ^B	B	e ^B	B	e ^B	B	e ^B	B	e ^B
아내 나이	0.044 (0.069)	1.045	0.115 (0.070)	1.122	0.172 (0.070)*	1.188	0.070 (0.067)	1.073	0.127 (0.067)	1.135	0.057 (0.068)	1.059
아내 교육	0.077 (0.305)	1.080	-0.315 (0.284)	0.730	-0.877 (0.260)**	0.416	-0.391 (0.297)	0.676	-0.953 (0.294)**	0.386	-0.562 (0.258)*	0.570
아내 수입	-0.183 (0.100)	0.833	-0.191 (0.096)*	0.826	-0.363 (0.113)**	0.696	-0.008 (0.097)	0.992	-0.180 (0.115)	0.835	-0.172 (0.109)	0.842
남편 나이	0.009 (0.063)	1.009	0.030 (0.059)	1.030	0.014 (0.058)	1.014	0.020 (0.062)	1.020	0.004 (0.063)	1.004	-0.016 (0.059)	0.984
남편 교육	0.113 (0.335)	1.120	-0.075 (0.288)	0.928	0.213 (0.295)	1.237	-0.189 (0.274)	0.828	0.100 (0.296)	1.105	0.289 (0.252)	1.335
남편 수입	0.101 (0.118)	1.106	0.179 (0.096)	1.196	0.089 (0.106)	1.093	0.078 (0.096)	1.081	-0.012 (0.112)	0.988	-0.090 (0.095)	0.914
막내 나이	0.109 (0.129)	1.115	0.059 (0.117)	1.061	0.036 (0.121)	1.037	-0.050 (0.121)	0.951	-0.073 (0.128)	0.930	-0.023 (0.122)	0.977

주: 기준 집단 vs. 비교 집단, *p < .05, **p < .01, ***p < .001.

3. 잠재집단에 따른 결과변수의 평균차이 분석 결과

잠재계층에 따른 결과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평균차이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아내의 지각된 스트레스, 아내의 삶의 만족도, 남편의 삶의 만족도, 아내 우울, 아내 가정-일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차를 나타내지 않았다. 남편의 지각된 스트레스는 $\chi^2(df=3)$ 이 11.58($p<.01$)으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아내 진보형이 부부 진보형과 남편 진보형보다 평균이 높았다. 아내의 배우자 지지는 $\chi^2(df=3)$ 가 57.91($p<.001$)로 집단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부부 진보형이 가장 높고, 남편 진보형이 아내 진보형과 부부 보수형보다 높았고 아내 진보형과 부부 보수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남편의 배우자 지지는 $\chi^2(df=3)$ 가 24.39($p<.001$)로 집단차이가 유의했고 남편 진보형과 부부 진보형이 아내 진보형과 부부 보수형보다 높았다.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chi^2(df=3)$ 가 17.28($p<.01$)로 집단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부부 진보형의 평균이 아내 진보형, 부부 보수형보다 높고 남편 진보형은 아내 진보형보다 높았다.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chi^2(df=3)$ 가 34.36($p<.001$)으로 집단간 유의한 평균차가 나타났으며 남편 진보형, 부부 진보형이 아내 진보형, 부부 보수형보다 평균이 높았다. 남편의 우울은 $\chi^2(df=3)$ 이 26.28($p<.001$)로 평균차가 유의했으며 아내 진보형, 남편 진보형, 부부 진보형 순으로 평균이 높았다.

남편의 가정-일향상은 $\chi^2(df=3)$ 가 12.08($p<.01$)이고 부부 진보형이 아내 진보형, 부부 보수형보다 평균이 높았고 남편 진보형이 부부 보수형보다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아내 가정-일 갈등은 $\chi^2(df=3)$ 가 9.86($p<.05$)으로 유의한 평균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편 진보형, 부부 보수형의 평균이 부부 진보형보다 높게 나타났다. 남편의 가정-일 갈등은 $\chi^2(df=3)$ 가 29.54($p<.001$)로 유의한 평균 차이가 나타났으며 아내 진보형, 부부 보수형이 부부 진보형, 남편 진보형보다 평균이 높았다.

〈표 5〉 결과 변수의 평균 차 검정 결과

	부부 진보형 평균(SD)	남편 진보형 평균(SD)	아내 진보형 평균(SD)	부부 보수형 평균(SD)	Overall χ^2 (p)	집단차
아내 스트레스	2.419 (.046)	2.449 (.043)	2.568 (.043)	2.447 (.032)	7.02 (.071)	-
남편 스트레스	2.271 (.043)	2.266 (.045)	2.442 (.041)	2.355 (.032)	11.58 (.009)**	3)1,2 4=1,2,3
아내 배우자 지지	4.078 (.064)	3.877 (.064)	3.489 (.079)	3.505 (.065)	57.91 (.000)***	1)2)3,4
남편 배우자 지지	4.018 (.073)	4.152 (.071)	3.745 (.076)	3.737 (.073)	24.39 (.000)***	2,1)3,4
아내 결혼만족	6.022 (.289)	6.164 (.335)	5.204 (.191)	5.445 (.124)	17.28 (.001)**	1)4,3 2)3, 2=1,4
남편 결혼만족	6.459 (.148)	6.581 (.231)	5.565 (.162)	5.713 (.181)	34.36 (.000)***	2,1)3,4
아내 삶의 만족	4.646 (.121)	4.762 (.148)	4.255 (.137)	4.553 (.106)	7.28 (.063)	-
남편 삶의 만족	4.739 (.132)	4.544 (.160)	4.340 (.126)	4.760 (.112)	6.84 (.077)	-
아내 우울	1.728 (.073)	1.824 (.066)	1.949 (.067)	1.806 (.059)	4.07 (.254)	-
남편 우울	1.561 (.040)	1.730 (.053)	1.927 (.068)	1.724 (.098)	26.28 (.000)***	3)2)1 4=1,2,3
아내 가정-일 향상	3.559 (.077)	3.566 (.084)	3.290 (.087)	3.486 (.074)	6.82 (.078)	-
남편 가정-일 향상	3.814 (.076)	3.805 (.085)	3.492 (.080)	3.605 (.071)	12.08 (.007)**	1)3,4 2)3, 2=4
아내 가정-일 갈등	2.466 (.075)	2.723 (.088)	2.642 (.074)	2.800 (.081)	9.86 (.020)*	2,4)1 3=1,2,4
남편 가정-일 갈등	2.295 (.077)	2.349 (.085)	2.772 (.071)	2.722 (.096)	29.54 (.000)***	3,4)1,2

주: *p < .05. **p < .01. ***p < .001.

III. 논 의

본 연구는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부모역할신념이 하위요인에 따라 어떻게 분류되고, 각 유형의 특징은 무엇인지, 어떤 요인들이 유형 분류에 영향을 주는지, 또한 구분된 유형에 따라 여러 결과 변수들의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부모역할신념은 부부 진보형, 남편 진보형, 아내 진보형, 부부 보수형으로 네 가지 하위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각 유형의 비율은 부부 진보형 29.2%, 남편 진보형 21.8%, 아내 진보형 29.2%, 부부 보수형 19.9%로 골고루 분포된 모습을 보였다. 이는 현재 한국 사회가 아버지 생계 부양자 및 어머니 양육자라는 보수적인 부모역할신념을 일률적으로 가지고 있던 과거에서 새로운 부모 역할을 기대하는 진보적인 가치관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있음을 보여준다. 부부 모두 진보적인 신념을 가진 유형의 비율이 29.2%라는 것은 맞벌이 가정이 보편적인 가족 형태로 사회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 속도에 비해 맞벌이 부부의 새로운 가치관 정립 및 역할 재분배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문지선, 2017; 이은희, 2002). 부모역할신념의 변화가 아직도 과도기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 중 하나는 부부 모두 보수형 유형에 속하는 경우라도 남편과 아내 모두 아버지 양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높은 동의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을 주 양육자로, 남성을 주 생계부양자로 역할을 구분 짓는 기존의 가치관에서는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는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아버지 양육이 중요하다는 인식의 변화가 아버지의 실제 양육 행동의 변화를 담보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양육을 분담하고 자녀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아버지(New father)의 개념이 등장하고 아버지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겨나고는 있지만, 실제 양육참여로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불일치 상황(박선주·강민주, 2017)이 보고되고 있는 바,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아버지 양육의 중요성은 인지하더라도 여전히 돌봄 노동을 공동으로 책임지려는 인식 및 행동의 변화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실제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아버지라 하더라도, 실내 놀이 및 야외 활동에 국한 되어있는 것이 현실이며(최유진 외, 2016) 나머지 가사 및 자녀 돌봄 부담은 고스란히 여성의 몫으로 남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각 유형을 분류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을 때 아내의 나이, 아내의 교육수준, 아내의 수입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는 여성의 연령이 어릴수록, 교육수준과 소득이 높을수록 진보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진다는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이다(김소정, 2018; 임정빈·정혜정, 2000; Motiejunaite & Kravchenko, 2008). 교육수준이 높고, 수입이 많은 여성은 본인 스스로 진보적인 부모역할신념을 가지면서 동시에 진보적인 가치관을 가진 배우자를 만날 가능성이 많아 부부 진보형에 포함될 확률이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에 중요한 함의를 갖는데, 기본적으로 여성에게 다양한 교육과 안정적인 일자리가 먼저 제공된다면 여성 자신의 가치관 정립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진보적인 신념을 가진 배우자를 선택하고 평등한 역할 분배 및 효과적인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가정을 이루어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네 집단으로 구분된 잠재 집단 유형 간에 나타난 집단별 차이를 중심으로 주목할 만 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내 진보형의 남편이 스트레스와 우울을 가장 높게 지각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진보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보수적인 사람에 비해 정신 건강 수준이 높고(Barnett & Hyde, 2001; Wierda-Boer, Gerris & Vermult, 2008), 보수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진 남성일수록 정서적 고통에 더 민감하다는(Barnett & Hyde, 2001)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와 더불어 본인의 전통적인 부모역할신념과 상반되는 배우자의 기대 및 새로운 아버지 역할에 대한 압력이 가해졌을 확률이 크다. 진보적 신념을 지닌 아내는 육아와 관련된 남편의 방관자적 태도에 불만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김나현 외, 2013) 이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의 갈등을 야기해 남편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가져왔을 수 있다. 즉, 아내와 상충되는 성역할 신념으로 인해 보수적인 부모역할신념을 가진 남편은 더 큰 심리적인 압박과 부담을 느껴 상대적으로 많은 스트레스와 우울을 지각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워킹맘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노성숙·한영주·유성경, 2012)에서 워킹맘들이 “약한 지혜”를 발휘하여 부드러운 관계성 속에서 함께 가는 동반자로 남편을 세워나가는 실천전략을 제안한 것과 관련이 깊다. 진보적인 아내와 보수적인 남편이 동반 양육 파트너십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관계성에 기초하여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유도할 수 있는 실제적인 교육이 다양한 수준에서 시도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아내 진보형의 남편들은 가장 낮은 가정-일 효과와 가장 높은 가정-일 갈등을 나타내었다. 진보적 신념을 가진 아내는 남편에게 평등한 가사분담 혹은 양육분담에 대한 요구를 더 많이 하게 되며, 서로의 역할을 공유하고, 책임을

나누기를 원하지만, 보수적인 역할 신념을 가진 남편에게 이러한 역할 공유의 과정은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크다(김수정, 2015). 남편의 협력이 낮은 경우 아내는 강압적인 양육태도를 보일 확률이 높아지고(신숙재·정문자, 1997; 정순심·문혁준, 2019) 이러한 혼돈 속에서 남편은 배우자 지지를 낮게 지각하게 되며, 배우자 지지를 낮게 지각할수록 가정-일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기존 연구와 같은 맥락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승미·구혜령, 2013). 동시에 남편은 가사노동이나 양육행동에 저항감을 느끼게 되거나 자신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기대와 가정에서 남편, 아버지, 아들로 요구되는 기대를 모두 부합하고자 하는 욕구가 상충되는 갈등을 경험하게 되어(최빛나·김정민, 2018) 이 또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내 진보형의 여성은 가장 낮은 결혼 배우자지지, 결혼만족도를 나타냈지만 가정-일 갈등 측면에서는 오히려 보수적인 부모역할신념을 가진 유형의 여성에 비해 낮은 갈등 수준을 보였다. 여성의 진보적인 성역할 신념은 일에서의 업무성과 향상을 성취하여 통제력, 자아수용, 개인성장의 측면에서 행복감을 더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박민정, 2019). 이에 가정-일 갈등의 상황에서도 진보적인 부모역할신념을 가진 여성의 경우 아이 양육 및 가사 일에 관련한 책임을 혼자 짊어지기 보다는 남편과 함께 나누고, 일을 통한 자기 성장을 도모할 수 있기에 더 낮은 가정-일 갈등을 경험했을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남편 진보형의 경우, 아내와 남편이 모두 가장 높은 결혼 만족도 및 배우자지지 지각을 보여주었다. 이는 진보적인 부모역할신념을 가진 남성의 경우 더 높은 결혼만족도를 보인 선행연구 결과(김은지, 2011; 김지현·황옥경·최희철, 2005)와 보수적 성역할 신념을 지닌 여성일수록 높은 결혼만족도가 나타난다는 기존의 결과와 일치한다(이여봉, 2010; Minnotte et al., 2010). 보수적인 부모역할신념을 가진 여성은 남편의 가사노동 및 양육행동에 대한 기대를 낮게 가질 것이며, 불공평한 분담상황 또한 스스로 감수하려는 경향 또한 있어(강기연, 2000) 상대적으로 남편의 양육참여를 더 많은 것으로 지각 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며, 진보적인 부모역할신념을 가진 남편은 아내의 일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이 또한 아내의 결혼만족도를 높였을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오민아·변길진·권정윤, 2018).

배우자 지지는 배우자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 혹은 실제로 받는 도움 등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김수정, 2015) 진보적인 부모역할신념을 가진 남편은 적극적인 역할 분담, 가사 및 양육 참여로 아내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했을 것이며, 보수적인 부모역할신념을 가진 아내는 남편을 가정의 주 생계부양자로 여기고, 그의 일을 중요시하며, 남편의 필요시에 자신을

더 헌신하여 남편을 뒷받침하거나 지지하는 반응을 해줄 가능성이 커 부부 모두 높은 배우자 지지를 지각하였을 것이다. 또한 남편 진보형의 남편들은 낮은 가정-일 갈등 수준을 보였는데, 이윤석(2010)의 연구결과에서 가사분담의 비율이 큰 남성의 경우 일-가정 양립에서 유익한 균형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고, 이는 가정에서의 역할 몰입으로 생긴 자원이 일 영역에서의 수행을 긍정적으로 촉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진보적 신념을 가진 남편은 실제 양육 행동이나 가사 역할 분담에 더 적극적이기에 낮은 가정-일 갈등 수준을 경험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남편 진보형의 여성은 다른 유형에 비해 오히려 더 높은 가정-일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가정-일 갈등의 영역은 배우자의 신념보다는 여성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아내의 가정-일 갈등에서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중요한 변인이라고 한 기존의 연구(우지혜, 2014)와는 다른 결과이다. 낮은 양성 평등의식을 가진 아내가 가정-일 갈등을 겪을 때, 개인의 성장 수준이 더 낮아지는 관계를 보인 박민정(2019)의 연구와 함께 생각해보면, 남성 생계 부양자, 어머니 돌봄 책임자로 요약될 수 있는 보수적인 성역할태도는 가부장으로서 남성이 행하는 모든 행동 및 태도를 이상적인 형태로 설정하며, 불평등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당화 한다. 이에 위계화된 고정관념에 따라 전통적인 부모역할신념을 가진 여성은 기존 사회에서 요구되었던 좋은 어머니에 대한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가 주 양육자 어머니 역할에 높은 기준을 부과하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죄책감, 스트레스 등을 더 많이 지각할 것이다(조운진, 2017). 이러한 스트레스 상태에 놓여있는 여성에게는 일에서 얻을 수 있는 성취감이나 통제감 등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여 더 많은 가정-일 갈등을 야기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즉, 효과적인 일-가정 양립을 이루어야 하는 맞벌이 아내에게 단순히 진보적인 성향의 남편과의 관계 만족만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맞벌이 아내 스스로가 진보적인 부모역할신념을 가져 일-가정 양립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남편이 진보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닐수록 아내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높았으나, 아내가 정규직 일자리를 갖는 것과 관련해서는 남편의 성역할태도보다는 아내 자신의 진보적 성역할태도가 관련이 있었다는 선행 연구(문지선, 2017)와 연관 지어 보면 여성 스스로가 진보적 성역할태도 및 부모역할신념을 갖는 것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된다.

남편 진보형과 더불어 부부 진보형의 경우에도 남녀 모두 높은 결혼만족도

를 보였는데, 호퍼스(Hofferth, 2003)의 연구에 따르면 진보적인 아버지 역할 신념을 가진 경우 실제로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많으며 자녀에 대한 책임감이 더 높다고 한다. 이러한 진보적인 아버지 역할 신념과 실제 양육의 정적인 관련성은, 아내의 양육부담을 줄여주고 더 나아가 진보적인 아내가 가지고 있는 남편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켜 아내의 결혼 만족을 높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진보적 부모역할신념을 가진 여성은 기존 사회에서 기대되었던 이분화된 성역할에서 적극적으로 벗어나서 경제활동 참여자로서의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이때 진보적인 부모역할신념을 가진 남편과의 일치된 가치관은 결혼 만족도를 높였을 것이다. 남편의 경우에도 자신이 이상적으로 그리고 있는 참여하는 아버지 상에 부합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높은 만족도가 배우자와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성 평등한 부부의 경우, 서로의 권리, 책임, 의무를 분담하고 상호존중, 개방적인 대화 등을 통해 부부의 의사소통이 더 잘되고, 직업에 대한 지지 또한 더 많이 하여, 평등한 부부 일수록 부부 갈등이 감소하고, 결혼만족은 높아진다는 선행연구와도 연결 지어 볼 수 있다(김오남, 2006, 김주현·문영주, 2010; 이정은·이윤형, 2012).

부부 진보형의 아내는 가장 높은 배우자 지지를 지각하였고, 남편 또한 보수적인 부모역할신념을 가진 집단에 비해 높은 배우자 지지를 지각하였다. 진보적인 부모역할신념은 단순히 성별로 양육자와 생계 부양자의 역할을 가르치지 않으며, 부부 모두가 양육 및 부양의 책임을 공동으로 나누려고 한다. 맞벌이 가정의 운영은 부부 공동의 과제이므로 부부가 서로 가정에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타협해야하는데(김은석 외, 2017), 부부 진보형의 남편과 아내는 가정 내부 혹은 외부 영역의 주체에 대해 성별에 따라 일방적인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서로의 가정영역과 일 영역에서의 활동을 인정하기 때문에 더 많은 배우자 지지를 지각하였을 것으로 유추된다. 또한 배우자의 지지는 부부 사이의 협력적인 태도로 작용되며, 이는 양육과 관련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서로 기능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김명원, 강민주, 2011).

부부 보수형 아내의 가정-일 갈등은 네 가지 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가정 양립에서 부부의 성역할 태도는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는데, 보수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닌 남편은 아내의 경제활동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박인숙, 2016), 양육의 일차적 책임을 아내에게 부과하고 가사 노동에도 적게 참여하여 아내는 양육 및 가사 노동에 대한 더 큰 부담을 안게 되어 가정

-일 갈등을 더 크게 지각하게 되었을 수 있다(김신희·양은주, 2012, 오민아·변길진·권정윤, 2018). 더구나 본 연구 대상자는 미취학 아동을 둔 맞벌이 부부로서, 이 시기의 여성에게 자녀의 존재는 일-가정 양립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특히 보수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닌 여성은 육아와 일 사이의 완벽한 조화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어 더 많은 가정-일 갈등을 겪을 수 있다는 기존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이정은, 2017).

위의 논의 점들을 종합해 보면, 남편 진보 유형 및 부부 진보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맞벌이 부부의 심리적인 건강 및 일-가정 양립을 효율적으로 영위하는 데에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남편 진보형의 경우 보수적인 부모역할신념을 가진 여성의 인내와 감수로 인하여 더 긍정적인 부부 관계 및 낮은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인 안정을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나, 맞벌이 부부에게 중요한 일-가정 양립의 측면에서는 보수적 부모역할 신념을 가진 여성은 부정적인 일-가정 양립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덧붙여 보수적인 부모역할신념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어머니 상에 대해 과도한 신화를 가지고 있는 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양육참여를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제한하고 통제하려는 경향도 있을 수 있으며(Allen & Hawkins, 1999), 이는 불공평한 양육 분담 및 육아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 이처럼 맞벌이 부부의 일-양립이 어려워진다면, 부부 중 한쪽은 노동시장에서 물러나게 되거나 저출산, 이혼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이승미·김선미·김은정, 2014).

이러한 결과에 기초할 때, 부부의 심리적 안정 및 부부 관계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남편의 진보적인 부모역할 신념을 통해 실질적인 양육 행동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맞벌이 부부의 가정-일 갈등을 줄여 효율적인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기 위해 여성 또한 전통적인 부모역할신념에서 벗어나 진보적인 부모역할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의 중요성 또한 본 연구의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맞벌이 부부의 일 가정 양립을 도와주기 위한 육아휴직, 자녀 돌봄 휴가, 시차출퇴근제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마련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현실에서는 많이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남성의 경우 육아 휴직 사용 가능자 중 실제 사용 비율이 1.2% (통계청, 2019)에 그치는데, 이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이 만연하다는 것의 반증이라고도 볼 수 있다. 남성과 여성 모두 복직 후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휴직 제도를 사용하기 두려워하지만, 부부 중 한명이 제도를 이용해야한다면 불가피하게 대부분의 경우 여성이 그 대상자가 되며 이는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양육자라

는 전통적인 부모역할신념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진보적인 부모역할신념 및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여성에 비해 남성의 임금에 상대적으로 높기에, 남성이 육아휴직 및 돌봄 휴가를 사용할 경우 더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야기되는 것도 맞벌이 부부가 처한 불평등한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의 효과적인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부모역할에 대한 신념을 재고하는 노력과 함께 양성 평등적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지향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인 예로 스웨덴과 같은 부모가 각자 일정 기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해야하는 부모 할당제를 통한 남성의 육아 휴직 및 돌봄 휴가 등의 참여가 제고되어야 하며,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실제적인 제도적 변화가 있을 때 진보적인 부모역할신념 및 성역할태도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지는 선순환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경제적 책임을 남성과 여성이 함께 나누고 있으며, 공동육아의 필요성이 더 부각되는 맞벌이 부부의 효과적인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부모역할 신념을 유형화 해 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선행 연구들이 어머니 혹은 아버지 한 쪽의 성역할 태도 또는 부모역할 신념을 연구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부부 쌍자료를 이용하여 상호간 영향을 주고받는 체계로서 맞벌이 부부의 부모역할 신념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자녀 양육의 어려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외벌이 가정의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기에 추후연구에서는 외벌이 가구의 부모역할 신념이 어떻게 유형화 되는지 확인하여 맞벌이 부부와 외벌이 부부의 부모역할신념에서의 차이를 비교하고, 이를 통해 더 다각적인 시각에서 부모역할 신념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연구 참여자들 중 90% 이상이 4년제 대졸 이상으로서 상대적으로 고학력자들로 이루어져 있기에 연구의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고학력일수록 진보적인 신념을 가진 남성과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을 수 있으며, 이에 다양한 형태의 부모역할신념의 유형화가 이루어졌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추후에는 더욱 넓은 스펙트럼의 배경을 가진 맞벌이 부부의 부모역할신념을 구분해 본다면 역으로 진보적 부모역할신념 및 성역할태도의 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맞벌이 부부들의 일-가정 양립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다각적인 방향성에 대해 제시가 가능해질 것이다.

참고문헌

- 강기연(2000). 맞벌이 부부의 공평성 인지, 의사결정 참여 및 가정생활만족도: 사무직관리 전문직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
- 강기정·박혜성·계선자(2005). “맞벌이 가족 남편의 역할갈등 및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10권 2호. 5-25.
- 공선희(2009). 서울시 기혼남녀의 일-가족양립과 저출산.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사업보고서. 1-49.
- 김나현·이은주·곽수영·박미라(2013). “어린 아동을 둔 취업모의 양육부담감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19권 3호. 188-200.
- 김명원·강민주(2011). “맞벌이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사회적 지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 제49권 8호. 25-35.
- 김병수(2019).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원가족건강성과 부모역할신념이 문지기 역할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제28권 6호. 555-565.
- 김소정(2018). “한국 임금근로 기혼여성들의 성역할태도와 우울의 관계에서 일가족갈등의 매개효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교”.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제4권. 39-74.
- 김수정(2015).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 지지와 직무 만족과의 관계에서 일-가족 향상의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김신희·양은주(2012). “유자녀 직장여성의 다중역할 경험의 질에 따른 군집별 심리적 및 환경적 특징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여성*. 제17권 1호. 73- 94.
- 김오남(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족과 문화*. 제18권. 63-106.
- 김은석·유성경·임인혜·박찬정·임지숙(2017). “일-가정 양립 촉진적 자기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 29권 2호. 505-526.
- 김은지(2011). 부부 커뮤니케이션과 결혼만족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경상북도.
- 김주엽(2006). “일과 가정의 균형에 관한 문헌적 검토”. *인적자원개발연구*. 제8권 1호. 83-117.
- 김주현·문영주(2010). “맞벌이 여성의 성역할태도가 결혼생활 만족과 일 만족에 미치는 영향-일-가정 갈등과 일-가정 강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14권 2호. 109-126.

- 김지현·황옥경·최희철(2005). “중년 남성의 성역할, 성역할 갈등과 부부의 결혼만족”. 상담학연구. 제6권 2호. 621-632.
- 노성숙·한영주·유성경(2012). “한국에서 '워킹맘'으로 살아가기: 직장인엄마의 다중역할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4권 2호. 365-395.
- 문지선(2017). “부부의 성역할태도로 본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한국사회학. 제51권 2호. 191-232.
- 박경(2003). “부정적인 생활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문제가 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8권 3호. 581-593.
- 박민정(2019). “일-가정양립이 취업모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돌봄 서비스 만족, 가사분담, 양성평등의식, 성역할태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제20권 9호. 66-81.
- 박선주·강민주(2017). “맞벌이 가정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와 어머니 문지기 역할이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육아정책연구. 제11권 3호. 87-111.
- 박선영·권석만(2014). “삶의 의미와 주관적 안녕 및 우울의 관계 대학생 집단과 중년집단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33권 3호. 549-571.
- 박인숙(2016). 맞벌이 여성의 일-가족 갈등 및 일-가족 촉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준호·서영석(2010).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판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29권 3호. 611-629.
- 백주희(2009). “가족가치관과 성역할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변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7권 3호. 239-251.
- 송리라·이민아(2012). “성역할태도와 우울”. 한국인구학. 제35권 3호. 87-116.
- 신숙재·정문자(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민아·변길진·권정윤(2018).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성역할 가치와 양육분담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일-가정 양립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유아교육학논집. 제22권 5호. 429-448.
- 우지혜(2014).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덕성여자대학교. 서울.
- 유계숙(2010).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이 부인의 일-가족 전이와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여성연구. 제49권 1호. 41-69.
- 이미숙(1996). “맞벌이부부의 성역할태도와 성역할정체감이 가사분담과 결혼만족

- 도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집. 제16권 1호. 153-173.
- 이수연(2000). 부부의 가족주의 가치관 및 가족관계 만족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석사학위 논문.
- 이승미·구혜령(2013). “자녀양육기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정 상호작용 유형과 유형별 특성”. 한국생활과학학회지. 제22권 4호. 575-591.
- 이승미·김선미·김은정(2014). 한국사회 맞벌이부부의 일과 삶.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SSK)사업 결과보고서.
- 이여봉(2010). “부부역할과 여성의 결혼만족도: 연령범주별 분석”. 한국인구학. 제33권 1호. 103-131.
- 이윤석(2010). “취업한 기혼 남녀의 일과 가족 전이: 부정적 전이와 긍정적 전이의 통합적 접근”. 한국인구학. 제33권 2호. 1-31.
- 이은희(2002).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맞벌이 남녀의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10권 10호. 99-112.
- 이정은(2017). 성역할 고정관념이 일-가정 양립 갈등에 미치는 영향 국제비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정은·이윤형(2012). “성역할 태도와 자아존중감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노출의 매개 효과”. 상담학연구. 제13권 6호. 2543-2555.
- 이재림·손서희(2013).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여성의 일-가족 갈등: 직장 및 자녀양육 관련 자원과 지각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8권 1호. 93-114.
- 임정빈·정혜정(2000). 성역할과 여성. 서울: 신정
- 장춘미(2009). “스트레스와 결혼만족간의 관계에 대한 부부의 지지행동 및 갈등해결행동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4권 1호. 153-171.
- 전점구·최상진·양병창(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6권 1호. 59-76.
- 정순심·문혁준(2019). “아버지가 인식한 부모역할신념과 어머니 문지기 역할이 아버지 양육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교육연구. 제11권 1호. 71-94.
- 조명한·차경호(1998). 삶의 질에 대한 국가간 비교. 서울: 집문당.
- 조운진·임인혜(2016). “한국판 어머니·아버지 역할 신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제20권 3호., 69-100.
- 조운진(2017).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부모역할신념과 어머니 문지기역할, 부부 공동양육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최빛나·김정민(2018). “중년기 남성의 성역할 갈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

- 향”.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5.
- 최유정·최미라·최선헌(2018). 맞벌이 부부의 역할분담이 일 가정 갈등과 가정생활만족도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 제19권 1호. 47-93.
- 최유진·이택면·황정임·마경희·주재선·김은지·이현재·문희영 (2016). “2016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분석 연구”.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통계청(2009; 2019). “생활시간조사 결과”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6/4/index.board 에서 2020. 06. 23 인출
- _____(2020).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보도자료” http://kostat.go.kr/assist/synap/preview/skin/doc.html?fn=synapview383260_1&rs=/assist/synap/preview에서 2020.06.23. 인출.
- 한인영·홍선희(2011). “여성의 성역할인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여성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제16권 제4호. 477-498.
- 한지숙·유계숙(2007). “기혼근로자의 성역할태도와 일가족 지향성이 일가족 갈등/축진 및 가족친화제도 이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5권 제5호. 143-166.
- Adamsons, K., & Pasley, K. (2013). Refining identity theory to better account for relationships and context: Applications to fathering. *Journal of Family Theory & Review*, 5(3), 159-175.
- Akaike, H. (1973). Maximum likelihood identification of Gaussian autoregressive moving average models. *Biometrika*, 60(2), 255-265.
- Allen, S. M., & Hawkins, A. J. (1999). Maternal gatekeeping: Mothers' beliefs and behaviors that inhibit greater father involvement in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9-212.
- Amato, P. R., & Booth, A. (1995). Changes in gender role attitudes and perceived marital qua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66.
- Asparouhov, T., & Muthén, B. (2014).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Three-step approaches using M pl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1(3), 329-341.
- Barnett, R. C., & Hyde, J. S. (2001). Women, men, work, and family: An expansionist theory. *American Psychologist*, 56(10), 781.
- Beitel, A. H., & Parke, R. D. (1998). Paternal involvement in infancy: The role of maternal and paternal attitud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2(2), 268.
- Belch, G. E. (1978). Belief systems and the differential role of the

- self-concept. *ACR North American Advances*, 5, 320-325.
- Bonney, J. E., & Kelley, M. (1996). Development of a measure assessing maternal and paternal beliefs regarding the parental role: The Beliefs Concerning the Parental Role Scale. Unpublished manuscript, Old Dominion University, Norfolk, VA.
- Bonney, J. F., Kelley, M. L., & Levant, R. F. (1999). A model of fathers' involvement in child care in dual-earner 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3, 401-415.
- Brewster, K. L., & Rindfuss, R. R. (2000). Fertility and women's employment in industrialized nation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1), 271-296.
- Burnett, S., Gatrell, C., Cooper, C., & Sparrow, P. (2011). Fatherhood and flexible working: a contradiction in terms?. In Stephan Kaiser, Max Josef Ringlstetter, Doris Ruth Eikhof, & Miguel Pina e Cunha (Eds.). *Creating Balance?* (pp. 157-171). Springer.
- Carlson, D. S., Kacmar, K. M., Williams, L. J. (2000). Contruction and initialvalidation of a multidimensional measur of work-family conflic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ur*, 56, 249-276.
- Carlson, D. S., Kacmar, K. M., Wayne, J. H., & Grzywacz, J. G. (2006). Measuring the positive side of the work-family interfac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work-family enrichment scal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ur*, 68, 131-164.
- Celeux, G., & Soromenho, G. (1996). An entropy criterion for assessing the number of clusters in a mixture model. *Journal of classification*, 13(2), 195-212.
- Clark, S. L. (2010). Mixture modeling with behavioral data.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Diener, E., Emmons, R., Larsen, R.,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ment*, 49, 71-75.
- Fox, G. L., & Bruce, C. (2001). Conditional fatherhood: Identity theory and parental investment theory as alternative sources of explanation of father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2), 394-403.
- Gaunt, R. (2008). Maternal gatekeeping: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Journal of Family Issues*, 29(3), 373-395.

- Hattery, A. J. (2001). Tag-team parenting: Costs and benefits of utilizing nonoverlapping shift work in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Families in Society*, 82(4), 419-427.
- Hauser, O. (2012). Pushing daddy away? A qualitative study of maternal gatekeeping. *Qualitative Sociology Review*, 8(1), 34-59
- Hofferth, S. L. (2003). Race/ethnic differences in father involvement in two-parent families: Culture, context, or economy?. *Journal of Family Issues*, 24(2), 185-216.
- Jacobs, J. N., & Kelley, M. L. (2006). Predictors of paternal involvement in childcare in dual-earner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Fathering: A Journal of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about Men as Fathers*, 4(1), 22-47.
- Jung, T., & Wickrama, K. A. (2008).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1), 302-317.
- Lamb, M. E. (Ed.). (1986). *The father's role: Applied perspectives*. Wiley-Interscience.
- Marsiglio, W., & Roy, K. (2012). *Nurturing dads: Social initiatives for contemporary fatherhood*. Russell Sage Foundation.
- McBride, B. A., Brown, G. L., Bost, K. K., Shin, N., Vaughn, B., & Korth, B. (2005). Paternal identity, maternal gatekeeping, and father involvement. *Family Relations*, 54(3), 360-372.
- Mendell, N., & Rubin, D. (2001).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a mixture model. *Biometrika*, 88, 767-778.
- Minnotte, K. L., Minnotte, M. C., Pedersen, D. E., Mannon, S. E., & Kiger, G. (2010). His and her perspectives: Gender ideology, work-to-family conflict, and marital satisfaction. *Sex Roles*, 63(5-6), 425-438.
- Motiejunaite, A., & Kravchenko, Z. (2008). Family policy, employment and gender-role attitudes: A comparative analysis of Russia and Sweden.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8, 38-49.
- Muthen, L. K., & Muthen, B. (2018). Mplus. The comprehensive modelling program for applied researchers: user's guide, 5.
- Nangle, S. M., Kelley, M. L., Fals-Stewart, W., & Levant, R. F. (2003).

- Work and family variables as related to paternal engagement, responsibility, and accessibility in dual-earner couples with young children. *Fathering: A Journal of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about Men as Fathers*, 1(1).
- Nomaguchi, K. M. (2007). Change in work-family conflict among employed parents between 1977 and 1997.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1(February), 15-32.
- Norton, R. (1983). Measuring marital quality: A critical look at the dependent variab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41-151.
- Palkovitz, R. (1984). Parental attitudes and fathers' interactions with their 5-month-old infa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0(6), 1054.
- Peel, D., & McLachlan, G. J. (2000). Robust mixture modelling using the t distribution. *Statistics and computing*, 10(4), 339-348.
- Rane, T. R., & Mc Bride, B. A. (2000). Identity theory as a guide to understanding fathers' involvement with their children. *Journal of Family Issues*, 21(3), 347-366.
- Schwarz, G. (1978). Estimating the dimension of a model. *The annals of statistics*, 6(2), 461-464.
- Sclove, S. L. (1987). Application of model-selection criteria to some problems in multivariate analysis. *Psychometrika*, 52(3), 333-343.
- Vermunt, J. K. (2010). Latent class modeling with covariates: Two improved three-step approaches. *Political analysis*, 450-469.
- Voydanoff, P., & Kelly, R. F. (1984). Determinants of work-related family problems among employed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881-892.
- Wierda-Boer, H. H., Gerris, J. R., & Vermulst, A. A. (2008). Adaptive strategies, gender ideology, and work-family balance among Dutch dual earne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0(4), 1004-1014.

Abstract

Latent Profile Analysis of Double-Earning Couples' Parental Role Beliefs with Infants and Toddlers*

Sung kyung, Yoo**·Jiwon Bang***

Inhye Lim****·Boyoon Choi*****·Suyoung Kim*****

This study is aimed to classify the beliefs concerning parental roles of the double-earning couples with infants and toddlers, and explored the variables to contribute the group classification and sub-group differences. 408 couples were classified into four sub-groups using latent profile analysis; progressive couple (PC), progressive husband (PH), progressive wife (PW), and conservative couple (CC). Wives' age, education and income were significant variables for group classification and groups differences were as follows; 1) The PC couple showed high marriage satisfaction, work-family enhancement, and life satisfaction. 2) The husbands of PW showed the highest stress, depression, family-work conflict, and the lowest family-work enhancement. On the contrary, the husbands of PH showed the highest marriage satisfaction, spousal support, and the lowest family-work conflict. 3) The wives of PW perceived the low level of spousal support, marriage satisfaction, but showed low level of family-work conflict. The wives of PH showed high level of marriage satisfaction, but experience high level of family-work conflict. 4) The CC couple showed more adaptive results than those of WP, but the wives of CC showed the highest family-work conflict.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9S1A5A203041362).

**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Doctoral student, Ewha Womans University

**** Doctoral student, Ewha Womans University

***** Doctoral student, Ewha Womans University

*****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Keywords : Beliefs concerning parental roles, Double-earning couples, Work-Family reconciliation, Family-Work enhancement, Family-Work conflict, Sex-role attitude, Latent Profile Analysis